

성명 수험번호 1 8

[주의] 발문에 '콜라'이면 답은 1개 이상임.
 [출처 보는 법] 16-6-10 → 16학년도 6평 10번 문제

1[16-6-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 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 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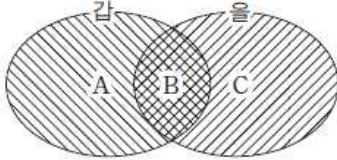
-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에 중시하고 있다
- ③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16-6-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3[16-6-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 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 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4[16-6-8]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보기〉

-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윤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5[16-6-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온난화 또는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무차별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국가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위험 사회'의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기에 글로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 ①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② 글로벌 위험은 인류 전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 ③ 글로벌 위험은 세계 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 ④ 글로벌 위험은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있다.
- ⑤ 글로벌 위기의 대응 원칙은 이익의 최대화가 아닌 위험의 최소화이다.

6[16-6-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p> <p>을: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p> <p>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p>
(나)	<p>분배 정의에 대한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범례></p> <p>□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 <보기>
- ㄱ. A: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 ㄴ. B: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 ㄷ. C: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 ㄹ.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7[16-6-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 <보기>
-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8[16-6-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9[16-9-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10[16-9-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 <보기> —

-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11[16-9-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법적 제재로 척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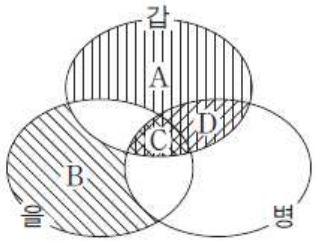
-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12[16-9-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13[16-9-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p> <p>을: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금지되어야 한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ㄴ. B: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ㄷ. C: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ㄹ.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14[16-9-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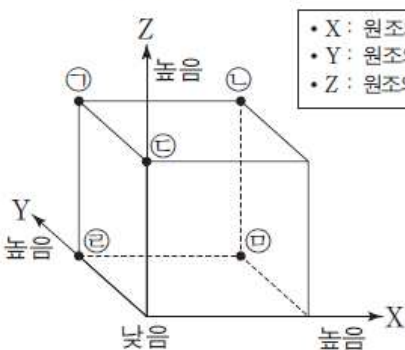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15[16-9-19] 갑 사상가에 비해 을 사상가가 갖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만약 국제 사회에서 어떤 사회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을: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




- X: 원조의 과제로 사회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정도
- Y: 원조의 목표로 개인들의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정도
- Z: 원조의 근거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6[16-수능-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17[16-수능-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의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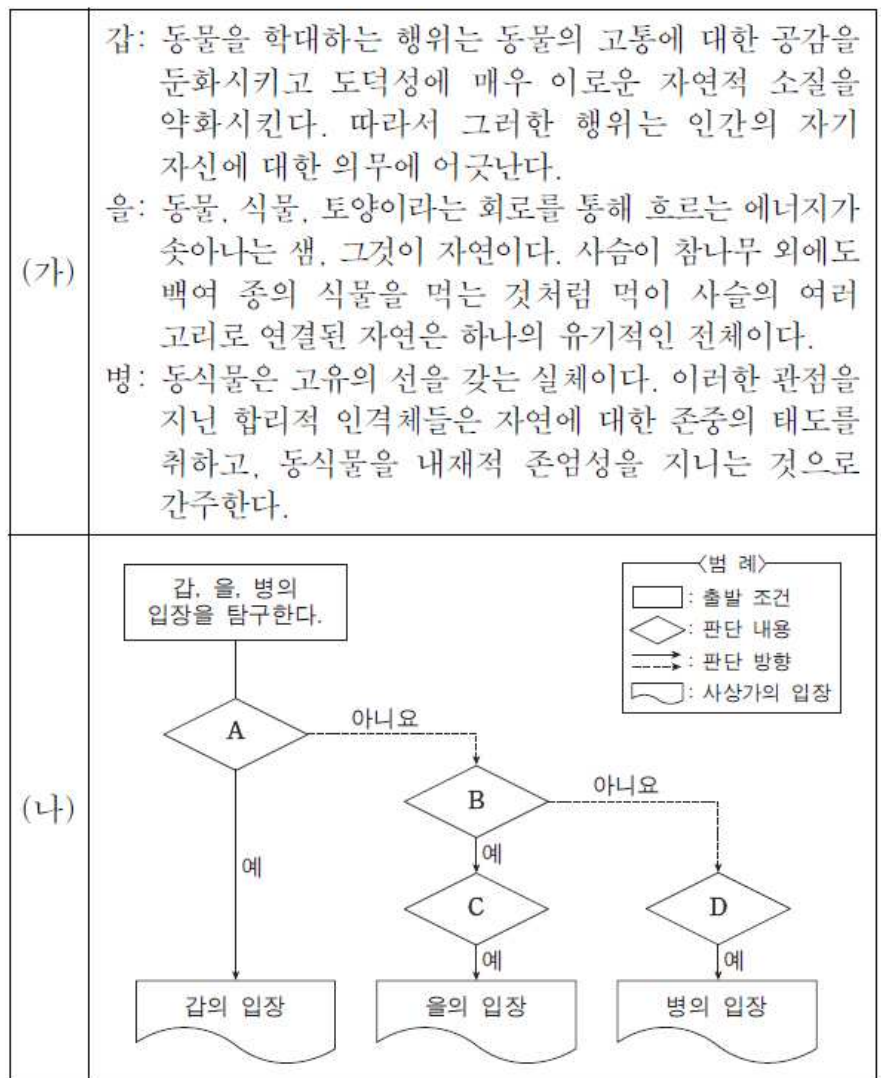
18[16-수능-14 변형]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보기>

- ㄱ.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 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 ㄷ.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 ㄹ.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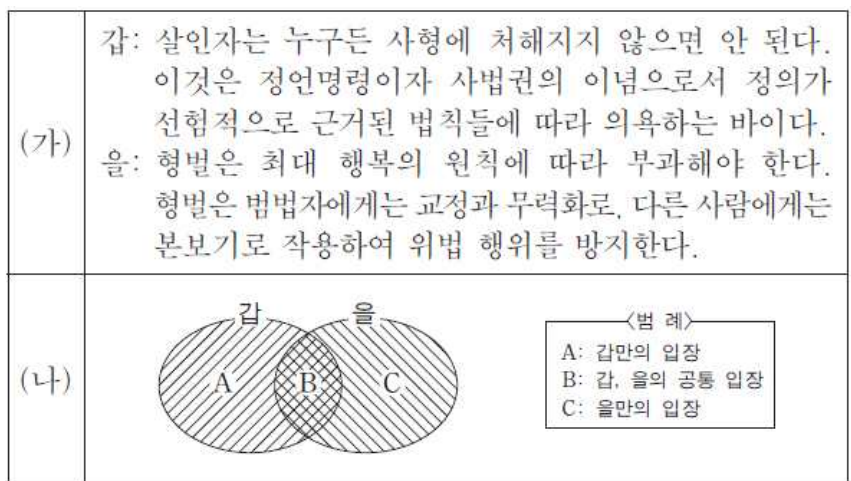
19[16-수능-15 변형]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기>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인가?
- ㄴ. B: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가?
- ㄷ. C: 무생물이라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ㄹ. D: 인간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한가?

20[16-수능-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16학년도 20제 답

1 4

2 5

3 가, 르

4 나, 다, 르

5 3

6 가, 다, 르

7 가, 나

8 2

9 5

10 가, 나, 르

11 2

12 3

13 다, 르

14 2

15 1

16 2

17 2

18 가, 나, 다, 르 : 기출 문제에서 선지는 그대로 사용하였음.

19 나, 다, 르 : 선지 그대로 활용하였음. 해당 기출 확인.

20 가, 다